부영그룹

창간 30주년 since 1989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8840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4월 17일 수요일(음력 3월 13일)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갈 곳 잃은 행복주택… 대체부지도 감감

시민복지타운 내 건립 추진… 경제성 낮아 무산
道, 노외주차장·공한지 등 대상 부지 발굴 추진
용지 확보 한계… 부서 협의·주민 설득 등 난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 백지화에 따른 대체 부지 발굴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외주차장 부지 등이 행복주택 대상지로 검토되면서 주차관련 부서와의 협의, 주민 설득 등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은 2016년 9월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사업은 시민복지타운 내 전체 부지 4만4700㎡ 중 30%인 1만3000㎡에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복주택 사업은 도민사회에서 찬반 논쟁으로 번지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사업시행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진단 결과 경제성이 기준보다 낮다는 결론 등이 나오면서 시민복지타운 내 건립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

이에 제주도는 별도의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부지 발굴 대상 지역은 연동·노형동·삼양동 등 제주시 동지역이 지목되고 있으며, 면적 1500㎡ 이상의 노외주차장과 공한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제주도는 기존 주차장에 지하층 등을 만들어 주차면수를 확대하고, 지상에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 등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가 부족한데다 협의 대상자가 많아 신규 건립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무주택자 주거 해결 등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확정된 부지는 없지만,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자치도가 민선 7기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조기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행복주택 대체 부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내 공영유료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26곳이다.

복개식 및 주차빌딩식 구조를 제외하고 면적 1500㎡ 이상인 노외주차장은 고산동산·공항입구 등 11곳에 이른다.

이밖에 제주시 동지역 공영무료주차장은 222곳, 민영 유료·무료 주차장은 59곳, 공한지는 249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알 림

창간 30주년 '한라에서 백두까지' 3인 초대전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제주의 대표신문으로 성장한 한라일보가 창간 30주년을 기념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3인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한라일보는 창간 이래 지금까지 한라산의 가치를 발굴 선양하고, 백두산 탐사를 통해 제주와 북한, 남북간 평화교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조명해왔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이제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를 상징하는 슬로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창간 기념 전시에는 국내외 **작가 3인이 민족의 영산이자 남과 북을 상징하는 한라산과 백두산을 소재로 한 그림과 사진작품 60여점**을 선보입니다. 한라산의 아름다움은 물론 백두산의 숨겨진 진면목을 감상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1차 전시
▶ 기 간: 2019. 4. 20(토) ~ 25일(목)
▶ 개막식: 2019. 4. 20(토) 오후 4시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 2전시실

2차 전시
▶ 기 간: 2019. 5. 4(토) ~ 5월 17일(금)
▶ 장 소: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전시실

"저가관광 해법은?"

송객수수료·인두세 등 대책 모색
도의회 문광위 18일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경용 위원장)는 18일 오후 4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저가관광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해법찾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경용 위원장은 "최근 조심스레 중국에서 사드해빙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관광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며 "관광객은 늘어도 지역의 낙수효과가 미미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균형적인 수급정책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포스트 사드를 준비할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여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문종태 의원도 "그동안 송객수수료, 노투어피, 인두세 문제 등 제주관광의 고질적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만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스스로 해결 가능한 과제와 해법을 찾기 위해 관광전문가, 행정, 관광업계가 다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관광상품 유통구조 변화동향과 제주의 시사점', 박현 제이제이 글로벌 대표가 '중국 사드 전후 제주 저가관광 구조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문종태 의원을 비롯해 강동우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협회 회장, 고낙천 제주신라면세점 점장, 양홍식 제이트립 상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 오복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이 참여한다. 표성준기자

성산일출봉 관광객 행렬 16일 세계자연유산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에 많은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이 찾아 완연한 봄날씨 속에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한껏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갈등관리·도민권익증진 활동 본격화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거버넌스 체계도 도입

국립공원 확대 등 갈등 관리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 및 도민 권익증진 활동에 본격 나선다.

제주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관리를 비롯해 도내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도·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주민자치위원회·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별 최우선 해결 과제를 선정했다. ▷갈등관리 분과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 ▷권익증진 분과는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 체결 ▷기획운영 분과는 제2공항 갈등관리 소위원회 운영 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 이해 관계자 면담 및 현장 조사, 취약계층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활동 등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해소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 체결 등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한다.

제6기 제주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그동안 위원역량강화 활동 2회(교육·워크숍), 분과위 활동과제 선정을 위한 관련 부서 의견청취 2회 등을 실시했고 전체위원 회의 및 전체위원 워크숍을 통해 '사회협약제도와 향후 과제,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사례,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관리' 등 특강을 경청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내 주요 현안에 따른 갈등 조정과 도민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용담새마을금고

지점 신축개점 및 자산·공제 2,300억 달성 기념대회

행사일시 2019년 4월 20일(토) 11:00
행사장소 제주시 용담2동 용해로 게이트볼장(제주시 용해로 128)

이사장 문대중
부이사장 김동일
이사 박용택
이사 이창수
이사 양명일
이사 김상주
이사 진정율
이사 백경재
이사 박병호
감사 김덕보
감사 고희경
전무 고동수

용담새마을금고
본 점 (064)757-7411 제주시 용담로 128(용담일동)
용담이동지점 (064)711-7411 제주시 용문로 155(용담이동)